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

Characteristics of MMPI of Adolescent Cellular Phone Addicts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박순천
교수 백경임

Dept. of Home Economic, Dongguk Univ.

Master : Park, Soon Cheon

Professor : Baik, Kyung 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deal with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cellular phone addicts through the Minnesota Multiphase Personality Inventory (MMPI).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7 senior high school students (male 185, female 222) in 2nd grade in Daegu.

The cellular phone addiction inventory (CPAI)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an interview process, referring to the Young's Internet Addiction Self Diagnosis Scale. SPSS version 10.0 was employed for data analysis.

The mean score of the adolescent addict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non-addict group in Scale Pd, Pa, Pt, Sc and Ma.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ellular phone addict group is likely to suffer from more serious pathological disorders than the non-addict group. The rate of addictive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ddict group than in the non-addict group in psychological problematic score ranges in Scale Sc (Schizophrenia) and Ma (Hypomania). The study result suggests that adolescents who addictively use a cellular phone will be more likely to show immaturity, instability, impulsive personality, excessive activities, and escapism.

주제어(Key Words): 휴대폰(cellular phone), 청소년(adolescent), 다면적 인성검사 (MMPI), 정신분열증 (Sc: Schizophrenia), 경조증(Ma: Hypomania)

Corresponding Author: Baik, Kyung 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Kyung Ju Campus 707 Sukjang-dong KyungJu, KyungBuk, Korea Tel: 82-54-770-2266 E-mail: pgy@mail.dongguk.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휴대폰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90년대를 지나면서 휴대폰이 가지는 특성과 청소년들의 욕구가 부합하면서 휴대폰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 휴대폰은 청소년기의 특징인 또래관계 형성의 도구로써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범(2000)은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를 충족의 차원에서 ① 또래집단 유대성 ② 편의성 ③ 교체성을 들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폰이 또래집단과의 유대와 교제를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가지는 사교성, 도구성, 안도감 외에 이동성(Ross, 1993)과 즉각성(Leung & Wei, 2000)이라는 특성의 추가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Ross(1993)은 휴대폰을 소유함으로써 어느 곳에서나 전화를 걸 수 있고 상대방과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완벽한 도달가능성(reachability)과 이동성(mobility)이 사용자로 하여금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유익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휴대폰을 통해 자신이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약 없이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으며 고정되어있지 않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가능한 것이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휴대폰이 주는 편리함과 사교성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휴대폰 과다사용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장혜진(2002)은 휴대폰은 계속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타인 특히 또래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에의 의존성이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uler(1999)는 컴퓨터, 전화 같은 기술적으로 증진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s : CMC)의 범주 속에 들어갈 것이며 중독의 범주에서 연구되어

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휴대폰 역시 중독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은영(2001)은 이동전화 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의 연령대별 비교를 통하여 매체적 속성을 연구했다. 이동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메시지 도착 즉시 언제 어디서나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시공간초월성, 개인 대 개인이 바로 연결되며 소유 단위 자체가 개인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송신자나 수신자 모두 개인이 속한 집단을 염두에 둘 필요 없는 개인 중심성, 기다리는 시간이나 적절한 장소를 찾는 과정 없이 원할 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즉시성,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다른 매개체가 들어서 있지 않고 소속집단의 경계나 문지기의 방해 없이 서로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직접성이라는 특성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효율성 높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강정선(1998)은 휴대폰 채택자들의 성격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관이 뚜렷한 성격이며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이동 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즉시성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박길성(2001)은 청소년의 87%가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음을 보고(장혜진, 2002. 재인용)하였는데 이것은 박진숙(2000)이 이야기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한 번에 일곱 여덟 명, 많게는 한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 보고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즐겁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강하다고 말한다(중등우리교육, 2000).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휴대폰이 없다면 불편하고 답답할 것이며 불안하고 몇 분 간격으로 주머니를 뒤적이게 된다고 호소한다. 휴대폰 사용과 관련지어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장혜진(2002)은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을 비교하였다. 중독집단이 자기개념이 낮아 대인관계능력을 제외한 자기 존중감, 정서안정성, 문제 해결능력, 대인 신뢰감, 자기통제력 점수가 낮았으며 불안과 충동성점수는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아동발달백서(2002)에 의하면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초, 중, 고 학생 가운데 인터넷 중독 지표에서 중독증세를 나타낸 중독청소년의 비율이 전체의 11%에 달한다고 한다. 장혜진(2002)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자 역시 컴퓨터 중독자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음을 볼 때 불완전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 또한 다른 형태의 병리적인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휴대폰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라는 병리적인 용어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의 사용이 행해지는 상황은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개념 정의를 휴대폰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없이 휴대폰을 충동적으로 조작하고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현실생활에서의 불편을 경험하고, 의존적이고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병리적 용어로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기능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청소년들의 휴대폰사용으로 나타나는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휴대폰 중독적사용 실태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휴대폰이 청

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퍼져있을 만큼 일반화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갖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휴대폰 중독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2500여회 이상의 타당도 검증을 거친 객관적 성격 검사인 다면적 인성 검사(MMPI :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를 통해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성격 특성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휴대폰의 중독적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MMPI척도에서 보여지는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보이는 정신 병리적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는 성별에 차이가 있는가?

1-2.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는 휴대폰 사용시간, 사용시작시기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남·여 고등학교 2학년애

재학중인 407명의 학생들이다. 남·여 2개 고등학교의 2학년 7학급씩을 임의표집하여 남학생 185명(45.5%), 여학생 222명(54.5%)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고등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휴대폰이 고등학생들에게서 많이 애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MMPI(다면적 인성검사)는 미국에서는 12세까지도 독해력만 인정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치가 준비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는 연령의 하한선을 16세로 보며 재표준화 한국판에서는 중학생(만13~15세) 이상의 기준치가 준비되어 있어 고등학생이 연구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 측정도구

1) 휴대폰 중독 진단척도

본 연구에서는 Young의 인터넷 중독진단척도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하여 적합한 문항을 선정,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15문항이며 5단계 Likert척도로서 '5-항상 그렇다, 4-자주 그렇다, 3-그렇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다. 척도에 사용된 문항을 예를 들면 '휴대폰이 없다면 나의 생활은 엄청나게 불편할 것이다', '휴대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대화도중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고 싶다', 등으로 휴대폰 중독적 사용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점~75점 사이이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병리학적 정의가 확립되어있지 않은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점수를 사분위로 나누어 상위 25%를 중독적 사용집단으로 하위 25%를 비중독적 사용집단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중독적 사용집단의 병리적특성이 고찰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단계를 거쳐 휴대폰 중독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많으며 중독적 특성을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수 40점 이상의 상위 25%는 중독적 사용집단으로, 휴대폰 사용이 적으며 중독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수 23점 이하의 하위 25%는 비중독적 사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03년 5월 대구광역시 소재의 W여자고등학교 2학년 3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0.89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타당도는 관련전공교수들의 내용타당도로 검증되었다.

2) MMPI(Mi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국 가이던스에서 발행한 MMPI 383문항 검사다. MMPI 검사의 원형은 566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383문항으로 4가지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처리를 위한 코딩의 방법으로 전영민(2002)이 개발한 MMPI 전문가383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1) 타당도 척도

- ① ?(알 수 없다)척도-미응답 문항. 불안감, 이해능력의 부족, 반항적, 심한 우울감 등을 알 수 있다.
- ② L척도-다소 고의적이고도 부정직하며 세련되지 못한 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심리적 세련(psychological sophistication)의 정도를 알 수 있다.
- ③ F척도-F척도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영역이 많고 문제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 ④ K척도-현저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척도. 방어성, 경계심을 측정한다.

(2) 임상척도

- ① 척도1-Hs(건강 염려증 : Hypochondriasis) -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의 수와 이와 같은 증상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데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1) 김영환 외,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한국가이던스, 1994), p12, p18.

내는 척도.

② 척도2-D(우울증 : Depression) - 우울 증상을 측정한다. 기분척도(Mood)며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생활상황(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안정되고 안락하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좋은 지수다.

③ 척도3-Hy(히스테리 : Hysteria) - 전환신경증. 사람들에게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인의 양과 형태를 측정한다.

④ 척도4-Pd(반사회성 : Psychopathic Deviate) - 반사회성. 비사회적이며 비도덕성을 나타낸다. 가정이나 권위적 대상, 일반에 대한 불만, 자신 및 사회와의 괴리, 일상생활에서의 권태 등을 측정한다.

⑤ 척도5-Mf(남성특성-여성특성 : Masculinity-Femininity) - 직업 및 취미에 대한 관심, 심미적 및 종교적 취향, 능동성-수동성, 대인감수성을 측정한다.

⑥ 척도6-Pa(편집증 : Paranoia) - 호기심, 탐구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대인관계의 민감성, 의심성, 과민성, 망상의 정도를 측정한다.

⑦ 척도7-Pt(강박증 : Psychasthenia) - Pt척도는 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만성적 불안을 측정한다. 강박증, 비정상적인 공포, 자신감의 저하, 자기비판, 주의집중곤란, 과도한 예민성, 우유부단함, 죄책감, 완전주의 등의 심리적 장애를 측정하는 지수다.

⑧ 척도8-Sc(정신분열증 : Schizophrenia) - Sc척도는 다양한 사고, 감정, 행동 등의 장애로 인한 외부현실에 대한 해석의 오류, 망상, 환각 등을 측정한다. 감정반응의 위축 및 양면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현실 회피적, 공격성, 등의 행동을 보며 사회적 소외, 가족간의 갈등, 주의집중 및 충동억제의 곤란, 깊은 흥미의 결여, 자기가치 및 자아정체에 대한 심한 의문 등을 측정한다.

⑨ 척도9-Ma(경조증 : Hypomania) - 정신적 에너지, 사고와 행동의 과잉, 지나친 정서적 흥분, 관념의 비약, 과도한 낙천주의, 정력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경우를 측정한다.

⑩ 척도0-Si(내향성 : Social introversion) - 사회적 내향성. 사회적 장면에서의 불편함, 고립, 일반적 부적응 및 자기비하 등 개인의 사회적 접촉, 대인관계

의 회피, 비사회성 등의 인성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대상선정에서부터 질문지조사까지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 2개 남·여 고등학교의 2학년 담당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종의 질문지를 450부씩 배부하여 423부씩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각 16부를 제외하고 각 407부를 분석하였다. 질문지 배부 전 응답방식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부탁하였고 응답을 위한 소요시간은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대략 90분 정도였다. MMPI질문지의 특성상 2종의 질문지는 모두 다 기명으로 처리되었다. 설문지 자료는 SPSS WIN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특성과 휴대폰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성별, 휴대폰 사용시간, 휴대폰 사용시작시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MPI척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MMPI척도상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휴대폰 사용실태

연구대상자들의 휴대폰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의 경우 하루에 1시간미만 사용하는 집단이 34.6%(14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시간 이상 사용집단은 19.9%(81명), 1~3시간미만 사용집단은 19.4%(79명)로 나타났으며 3~5시간미만 사용집단은 10.8%(44

〈표 1〉 연구 대상자의 휴대폰 사용실태

변 수	카테고리	N(%)
휴대폰 사용시간/일	1시간미만	141(34.6)
	1~3시간미만	79(19.4)
	3~5시간미만	44(10.8)
	5~7시간미만	27(6.6)
	7시간 이상	81(19.9)
	미응답	35(8.6)
	합 계	407(100.0)
휴대폰 사용시작 시기	초등학교5~6학년	7(1.7)
	중학교	210(51.6)
	고등학교	146(35.9)
	기타(없음)	22(5.4)
	미응답	22(5.4)
	합 계	407(100.0)

명). 5~7시간미만 사용집단은 6.6%(27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1시간미만 사용 학생이 많은 수를 나타냈으나 장시간 사용하는 학생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휴대폰 사용시작시기’는 중학생 때가 51.6%(210명)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시기에도 35.9%(146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 때 사용을 시작한 학생들도 1.7%(7명)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사용연령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 사이에 있어서 휴대폰 사용은 이미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폰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5.4%를 나타내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성별, 사용시간, 사용시작시기의 관계

1)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성별의 관계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 사이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χ^2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성별의 관계

		중독적 사용	비중독적 사용	χ^2
성별	여자	54(58.1)	48(51.6)	0.782
	남자	39(41.9)	45(48.4)	
	합계	93(100.0)	93(100.0)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간의 성별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58.1%(54명)로 남학생의 39%(41.9명)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여학생의 경우 주변의 문제나 관심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이 타인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거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학생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성별은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2)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사용시간, 사용시작시기와의 관계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사용시간, 사용시작시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다.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간의 휴대폰 사용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7.498$, $p<.001$). 1일 휴대폰 사용시간에 대해 중독적 사용집단은 ‘7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이 35.9%(3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시간미만 사용집단도 18.5%(17명)를 차지하였다. 비중독적 사용집단은 1시간미만 사용집단이 57%(53명)를 차지하였으며 7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8.6%(8명)에 불과하였다. 중독적 사용집단이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답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장혜진(2002)의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이 자아 통제력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 통제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독적 사용집단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미만 사용한다’

〈표 3〉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휴대폰 사용시간, 사용 시작시기의 관계

변 수	카테고리	중독적 사용	비중독적 사용	χ^2
휴대폰 사용시간/일	1시간미만	17(18.5)	53(57.0)	37.498***
	1~3시간미만	16(17.4)	18(19.4)	
	3~5시간미만	16(17.4)	9(9.7)	
	5~7시간미만	10(10.9)	5(5.4)	
	7시간이상	33(35.9)	8(8.6)	
	합 계	92(100.0)	93(100.0)	
휴대폰 사용시작 시기	중학교	65(70.7)	46(52.3)	8.298*
	고등학교	27(29.3)	42(47.7)	
	합 계	92(100.0)	88(100.0)	

* p<.05 *** p<.001

고 응답한 학생들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휴대폰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가 더 중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에 따른 사용시작시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8.298, p<.05$). 중독적 사용집단에서는 중학교부터의 시작이 70.7%(65명), 고등학교 29.3%(27명)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비중독적 사용집단은 중학교 52.3%(46명), 고등학교 47.7%(42명)의 비율을 보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중학생 때부터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적 사용집단이 중학생 때부터 사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해영(200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동조성향이 휴대폰 사용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교시절은 또래집단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휴대폰 사용에 대한 욕구 역시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앞으로 휴대폰 사용연령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할 때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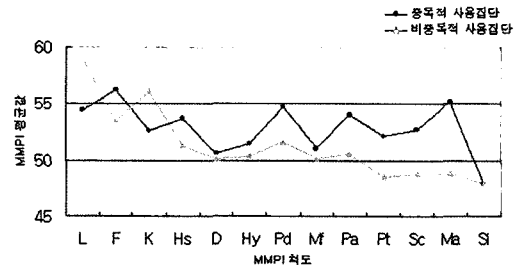
3.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MPI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MPI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MPI

척 도	중독적 사용		비중독적 사용		t
	M	SD	M	SD	
L	54.43	11.45	58.86	13.07	2.453*
F	56.27	12.69	53.49	12.87	-1.480
K	52.62	10.25	56.14	10.02	2.365*
Hs	53.73	11.10	51.24	10.19	-1.597
D	50.59	10.71	50.11	9.47	-0.326
Hy	51.46	9.95	50.34	10.11	-0.760
Pd	54.77	10.27	51.60	11.27	-2.007*
Mf	51.06	9.56	50.13	10.60	-0.632
Pa	54.05	11.9	50.55	11.99	-2.000*
Pt	52.16	11.18	48.52	11.03	-2.238*
Sc	52.75	10.69	48.83	11.54	-2.406*
Ma	55.16	9.05	48.84	9.03	-4.769***
Si	47.90	10.22	47.89	8.77	-0.008

* p<.05 *** p<.001



〈그림 1〉 휴대폰 중독적/비중독적 사용집단의 MMPI평균

분석결과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 사이에는 타당도 척도 중 2가지(L척도, K척도)와 임상척도 10가지 중 5가지 척도(Pd: 반사회성, Pa: 편집증, Pt: 강박증, Sc: 정신분열증, Ma: 경조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타당도 척도 중 2가지(L척도, K척도)는 중독적 집단보다 비중독집단의 평균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임상척도에서는 Pd, Pa, Pt, Sc, Ma 척도들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의 평균점수가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의 프로파일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MPI 특성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MPI척도상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임상척도 10가지 중 2가지 척도(Sc: 정신분열증, Ma: 경조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은 컴퓨터 중독청소년,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청소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MMPI척도에서 일반적인 중독자들이 보이는 특성은 D(우울증), Pd(반사회성), Pt(강박증), Pa(편집증)등에서 일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으나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의 특성에서는 그러한 특성은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해석은 다면적 인성검사(김중술, 2002)의 점수별 해석에 따른 것이며 문제영역은 짙은 선으로 구분하였다.

1)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Sc(정신분열증) 척도의 관계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Sc(정신분열증)척도의 관계를 χ^2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5>에 제시한 것과 같다.

Sc(정신분열증)척도에서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194$, $p<.01$). 중독집단에서는

<표 5>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Sc척도의 관계

척도	점수	중독적 사용	비중독적 사용	χ^2
Sc 정신 분열증	40이하	10(10.8)	28(30.1)	12.194**
	41~59	58(62.4)	45(48.4)	
	60~69	19(20.4)	18(19.4)	
	70이상	6(6.5)	2(2.2)	
합계		93(100.0)	93(100.0)	

** $p < .01$

41~59점에 해당하는 학생이 62.4%(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0~69점이 20.4%(19명), 40점 이하 10.8%(10명), 70점 이상이 6.5%(6명)순으로 분포되었다. 비중독적 사용집단은 41~59점의 범위에서 48.4%(45명), 40점 이하 30.1%(28명), 60~69점 19.4%(18명), 70점 이상 2.2%(2명)순 이었다. 중독적 사용집단의 문제영역(60점 이상)에서의 분포는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척도의 문제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은²⁾ 실제적인 대인관계보다 백일몽이나 환상을 더 즐기며 자기불만감이 많고 화를 잘 내며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성숙하다.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비밀스럽고 가까워지기 어렵다. 남들이 보기에 이들은 비정상적이거나 현실 회피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창조적이고 개성이 있으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비논리적이며 주의집중과 판단력 그리고 사고의 장애를 보이며,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으나 타인들이 보기에는 비순응적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환경에 대해 소외감과 유리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에 당면하면 공상이나 환상을 통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려 한다.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은 휴대폰을 자신만의 공간이라 생각하며, 휴대폰을 통해서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변 환경에 대해 고립감을 느끼지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

2) 김중술,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 112~115.

으며, 외롭지 않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결핍된 정서적 충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a(경조증)척도의 관계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a(경조증)척도의 관계를 χ^2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6)에 제시한 것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chi^2=11.583, p<.01$). 중독적 사용 집단이 문제영역인 60점 이상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중독집단에서는 60~69점에서 31.2%(29명), 70점 이상은 3.2%(3명)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중독적 사용 집단은 60-69점 15.1%(14명)에 불과하였다. Ma(경조증)척도에서 60점 이상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은³⁾ 활동과다와 비현실적 자기평가를 보이며 생각보다는 행동을 좋아한다. 쉽게 권태를 느끼고 욕구 좌절에 대한 내성이 약하며 충동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힘들어 흥분이나 적대감 및 공격성의 폭발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현실적이고 과대 망상적인 기대를 갖는다. 이들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불안하고 신경질적이며 긴장되고 안절부절못하여 걱정이 많다. 활동적이며 외향적이지만 대인관계에 있어 피상성을 보인다고 한다. 휴대폰 중독자들에게서 보이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불안해지며, 메시지가 들어오면 관심의 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 또한 그러한 특징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선행연구(장혜진,

2002)에서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중독적 사용 집단보다 낮은 정서안정성으로 불안감이 높고 의존성향이 높으며 더 낮은 자기통제력과 충동성이 더 높으며 대인신뢰감 정도도 낮은 성향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보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MMPI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 집단에서 여학생이 58.1%, 남학생이 41.9%로 여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 비율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았지만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여학생의 경우 기계적인 활동보다는 언어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변의 문제나 관심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이 타인들과 이야기하기를 즐길 것으로 여겨져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점은 이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두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 여부와 사용시간의 관계는 중독적 사용 집단의 사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chi^2=37.498, p<.001$). 중독적 사용 집단이 많은 시간 사용한다고 답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휴대폰 사용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 휴대폰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사항은 1일 1시간미만의 적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중독적 사용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있는 것으로 보면 휴대폰 사용시간 이외 사용자의

<표 6>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Ma척도의 관계

척도	점수	중독적 사용	비중독적 사용	χ^2
Ma 경조증	40이하	7(7.5)	14(15.1)	11.583**
	41-59	54(58.1)	65(69.9)	
	60~69	29(31.2)	14(15.1)	
	70이상	3(3.2)	.	
	합계	93(100.0)	93(100.0)	

** p <.01

3) 김중술, 다면적 인성검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 116~119.

태도 역시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사용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추후 휴대폰 사용시간과 사용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세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여부와 휴대폰 사용시작시기와의 관계는 중독적 사용집단이 더 어린 시기인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8.298$, $p<.05$). 휴대폰 사용시기가 이룰수록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휴대폰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보다 또래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휴대폰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휴대폰 사용연령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때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네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의 MMPI 각 척도 평균점수 프로파일에서 두 집단의 프로파일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며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로파일상으로 볼 때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과 비중독적 사용집단은 MMPI의 Sc(정신분열증)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194$, $p<.01$). Sc척도의 문제영역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실제적인 대인관계보다 백일몽이나 환상을 더 즐기며 자기불만감이 많고 화를 잘 내며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성숙하다고 보고 된다. 그들은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고 비논리적이며 주의집중과 판단력의 장애, 사고의 장애를 보이며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다. 또한 환경에 대해 소외감과 유리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에 당면하면 공상이나 환상을 통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려 한다.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불완전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모습에서 Sc척도 점수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휴대폰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은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Ma(경조증)척도의 문제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분포를 보였다($\chi^2=11.583$, $p<.01$). Ma척도의 문제영역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특징은 열성적이며 말이 많고 다재다능하며, 생각보다는 행동을 선호하여 활동과다하며 충동적이고 충동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한다. 욕구좌절에 대한 내성이 약하여 욕구만족에 대한 지연이 어렵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피상적이며 신뢰성이 결여되고 일의 끝을 맺지 못한다. 적대감과 공격적, 비현실적이며 과대망상, 불안감, 우울감을 보이고 사교적이며 열정적이나 대인관계는 피상적인 경우가 많고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은 충동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정화시킬 만큼의 여유 없이 자신을 쏟아낸다고 할 수 있다.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폰을 통해 대화를 한 다기보다는 진정한 소통 없이 감정을 보고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주변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번째,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척도에서의 차이는 알코올, 약물, 컴퓨터 중독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과는 차이를 보였다. Hodo & Fowler(1976) 연구와 Spieger(1970) 연구에서 알콜리즘 환자의 평균프로파일 조사결과 D, Pd척도가 높았다. 황인호(1994)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L, F, D, Pd, Pt, Si척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한순애(1996)의 연구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이 Pd, Ma척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서정욱(1999)의 연구에서 약물남용 청소년집단이 L, K, D, Hy, Pd, Pt척도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박순천(2003)의 연구에서 컴퓨터 중독집단의 청소년이 F, Hs, D, Pa, Pd, Pt, Sc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들은 알코올, 약물, 컴퓨터 중독청소년들과는 다른 척도에서 차이를 보였

으나 약물남용청소년에게서 Ma, 컴퓨터 중독청소년들에게서 Sc가 공통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볼 때 Sc와 Ma는 단순히 휴대폰 중독적 사용 청소년에게서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코올, 약물, 컴퓨터 중독청소년들이 문제를 보이는 척도와는 달리 Sc와 Ma에서만 차이를 나타내므로 그러한 중독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있어 휴대폰 사용은 성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성별은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으로 보인다.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더 길었으며 휴대폰 사용시간과 더불어 사용 태도 역시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독적 사용집단이 더 어린시기부터 휴대폰을 사용하였으며, 나이가 어린시기부터 사용하는 것이 중독적 사용에 빠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MMPI프로파일의 형태로 보아 중독적 사용집단이 정신 병리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Sc척도와 Ma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자아정체감의 혼란, 미성숙, 정서불안, 충동성, 적대감, 피상적인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MMPI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이고 종단적인 연구가 아니므로 각 척도와 휴대폰 중독적 사용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MMPI의 일차적인 사용목적은 정신 병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일반적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피검자의 심리적 상태 및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병리적 분류의 개념이 정상인의 행동설명 및 일반적 성격특성에 관한 유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Kunce & Anderson(1976, 1994)은 각 임상척도가 부정적 행동특징뿐 아니라 긍정적 행동특징도 나타낸다고 하였고, 이훈진(2000)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학생들의 긍정적 결과 해석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다(박순천, 2003,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상인에게 적용시 많은 주의를 요하며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구에 소재 하는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들을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정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다양한 연구로 검증된 MMPI척도를 이용하여 휴대폰 중독적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연구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정선(1998). 개인용 휴대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염태호, 오상우(1989). 개정판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 김중범(2000). 인터넷 중독하위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술(2002).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해영(2002). 청소년의 휴대폰사용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일(1995). MMPI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2001). 이동전화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속성에 관한 연구 -개인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45(4), 189-228.

- 박순천(2003). 컴퓨터중독 청소년의 MMPI(다면적 인성검사)특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범(2002).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현상에서 나타나는 하위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2000). 아이들의 핸드폰 커뮤니케이션. *중등우리교육*, 9, 92-95.
- 서정욱(1999). MMPI에 나타난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 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 관계의 특성. *한국아동학회지*, 22(4), 149-166.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곤섭(2001). 컴퓨터중독과 충동성,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2000). 2000학년도 신입생의MMPI결과분석
<http://counsel.hallym.ac.kr/real/12/story2.htm>
- 장혜진(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애착, 자기통 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등우리교육(2000). 핸드폰으로 나를 넓히기, 핸드폰에 조종당하지 않기-방담. *중등우리 교육*, 9, 96-102.
- 김벌리 영, 김현수 역(2000). 인터넷중독증. 서울 : 나눔의 집.
- 한국아동학회(2002). *한국아동발달백서*. 한솔교육문화연구원.
- 한순애(1997). 약물남용 청소년성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호(1994). 정상인과 알콜중독자의 MBTI 및 MMPI 성격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ang-Kook Yang (2001). Socio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use computers to excess. *Acta Psychiatr Scandinavica*, 104(3), 217-222.
- Deroiser, M. E. & Kupersmit, J. B. (1991). Costarican children's percept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56-662.
- Griffiths, M. D. (1995).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76, 14-19.
- Griffiths, M. D. (1996). Behavioral addictions: And issue for everybody? *The Journal of Workplace Learning*, 8(3), 19-25.
- Hodo, G. L. & Fowler, R. D. (1976). Frequency of MMPI two point codes in a large alcoholic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487-489
- James, R. C. (1978). Alcoholism and the MMPI : A review.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89(9), 1540-1558.
- Jeeyoung Lim, Myoung So Kim (2002). MMPI-A Profiles of Adolescents at High-risk of Internet Addiction.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93-108.
- Kunze, J., & Anderson, W. (1976). Normalizing the MMP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776-780.
- Kunze, J., & Anderson, W. (1994). Perspectives on uses of the MMPI in nonpsychiatric settings. In P. McReynolds & G. J. Chelune (Eds.),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 Leung, L. & R. Wei (2000). More Than Just Talk on the Move: Uses and Gratification of the Cellular Phon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08-320.
- Ross, J. P. (1993). Thirty Thousands Yuppies: Mobile Telephones in Finl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17.
- Spiegel, D., Hardley, P. A., & Hardley R. G. (1970). Personality test patterns of rehabilitation center alcoholics. Psychiatric inpatient and normal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366-371.
- Suler, J. (1996). Why this thing eating my life.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at the "palace" world wide web.
<http://www.rider.edu/users/suler/psy cyber/>

eatlife.htm.

Suler, J. (1999). Internet Addiction: In a nutshell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eatlife.htm>.

Suler, J. (2000). The Psychology of Cyberspace-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

P24601.rider.edu/sites/suler/psycyber/cybaddict.html

Young K. S. (1996). The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2004년 4월 17일 접수, 2004년 6월 29일 채택)